

블랑주택 밀집지역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내 블랑주택 밀집지역 5곳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추가지정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中区 槓忠洞 193일대의 2만1천8백11㎡ 등 3곳과 지하철 舍堂역 주변 블랑주택지역, 淸涼里 수협공판장일대 등 5개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정비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구역 내 블랑주택및 무허가 건물 1천3백96채가 헐리고 야파트·연립·단독주택 등 2천여 채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다.

새로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는곳 가운데 ▲千戶3지구(千戶洞 410일대·6천9백70㎡) ▲槓忠1지구(槓忠洞 193일대·2만1천8백11㎡) ▲新林5구역(新林洞 328일대·12만㎡) 등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합동재개발 방식에 따라 고층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方背1지역(方背洞 2525일대 3만㎡)는 저층 연립 또는 단독주택을 짓도록 하며 ▲淸涼4구역(淸涼里 11일대·6천1백54㎡)는 수협공판장이전 이후 별도의 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銅雀區 舍堂洞 산24일대에 지정된 舍堂제2 재개발 지구 인근 3.1근린 공원용지를 일부 해제, 재개발지구에 편입하는 한편 黑石洞 산23일대 현충묘지 공원의 일부도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 다음 10월중에 건설부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형질 변경기준 완화

서울시는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등의 토지형질 변경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지을 택지가 거의 바닥나면서 기존 주택지의 자투리 땅이나 구릉지의 임야등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형질변경등 관계규정이 까다로와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토지이용지침 및 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개정, 종전 폭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곳은 4m 이상 도로만 확보되면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형질변경의 허가대상취소 면적을 종전 1백70㎡(51.5평)에서 1백65㎡(50평)로 완화됐다.

대지조성시 측대나 옹벽 높이는 2m 이하일 때만 허가 됐으나 앞으로는 2m 이상일 때도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지조성에 특례 규정을 두어 기존주택지 내에서는 여러 필지로 된 공지라도 모두 합해 1백평이하일 때는 사실상 1개건물만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대지조성허가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고 준공검사 地目도 함께 정리되도록 했다.

또 대지조성이 허가된 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50%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하고 지목이 「岱」인 토지 1필지에 1개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굴착허가 없이 건축허가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소형·임대주택 건설 민정당, 개선안 마련

民正黨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小型주택공급확대, 민간업체에 의한 宅地개발, 賃貸住宅건설촉진 등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黨政策委가 마련, 발표한 이 방안은 우리나라의 住宅難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주택가격 폭등과 공급량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나 최근 신축주택의 평균 규모가 大型化되고 있어 주택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 소형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주택공사

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건설업체의 소형주택건설에는 稅制와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民正黨은 또 소형주택에 대한 無住宅국민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규모(25.7坪)이하의 소규모주택건설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용자비율을 현재 주택가격의 50%에서 70~80% 선으로 확대하고 용자상환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며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貸出금리를 대폭 인하, 지역별·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새 건축잡지 창간 건축 비평 전문지 「건축과 환경」

국내 유일의 건축비평 전문지가 창간되어 건축계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9월초에 선을 보인 월간 「건축과 환경」지는 기존 건축잡지와는 달리 건축작품에 대한 비평을 위주로하는 건축 비평 전문지로 출발, 이 부문에 대한 전문지가 전무한 국내 건축계에서는 「건축과 환경」지의 출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중론이다.

동지의 창간호에는 원도시 건축의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곁들여 작가와 비평을 실어 건축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창간 특집으로는 한국건축 평론에의 기대를 테마로 한 창작의 현실과 평론, 현대건축이론과 한국건축 비평을 주제로 한 좌담 내용을 실었다.

그 밖에 건축이론으로는 브루노제비의 건축론 등이 다양하게 편집되어 건축잡지의 일반적인 경향인 단순하게 보는 잡지에서 진일보한 의미있게 읽힐 수 있는 잡지로서의 편집태를 갖추고 있어 건축 비평 부재의 우리나라 현실에 새로운 비평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동지는 창간사에서 이 땅위에 묶을 다하는 구조물을 헤아려 그 “있음과 뜻”을 밝혀 건축문화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건축과 환경사 발행 5×7배판
값 4,500원 Tel. 722-9003~4